석독구결의 사동 표현

김성주*

요 약

字吐釋讀口訣과 點吐釋讀口訣에는 使動 範疇를 擔當하는 口訣字와 口訣點이 配定되어 있다. 字吐口訣의 口訣字는 '-ㅣ-, -ᄀᆞ-, -ᄉᆞ(ㅣ)-' 등이며, 點吐口訣의 口訣點은 『瑜伽師地論』의 경우 '24(·)', 『華嚴經』 권6, 권22, 권57의 경우 '42(·)', 『華嚴經』 권36의 경우 '24(|)' 등이다. 한편 原型理論의 觀點에서는 使動文을 典型的인 使動文과 周邊的인 使動文으로 나눌 수 있는데, 使動文의 成立 條件에 附合되는 典型的인 使動文을 對象으로 統辭的 使動과 被使動主의 格標識에 대해 살펴보았다. 字吐口訣의 '-ㅣ-' 使動은 現代國語와는 달리 統辭的 派生의 機能이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點吐口訣에서도 確認되었다. 被使動主의 格標識로는 'ㄹ'이 가장 普遍的으로 쓰이고, 이외에 'ㅁ'와 '十'가 局限되어 쓰였다. 周邊的 使動文에 대해서는 'ᄂᆞ-' 動詞에 局限하여 自動詞와 2項 他動詞로 쓰이는 自·他動 兩用動詞를 살펴보고 周邊的 使動文의 設定 可能性을 打診해 보았다. 한편 口訣文은 原文인 漢文에 影響을 받고 있는 점을 考慮하여 漢文의 使動 機能 動詞의 有無와 口訣文의 使動 標識 有無의 對應 樣相을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핵심어: 자토석독구결, 점토석독구결, 사동 범주, 구결자, 구결점, 원형이론, 전형적 사동문, 주변적 사동문, 자·타동 양용동사, 피사동주, 통사적 사동

1. 序論

本考는 高麗時代 國語가 使動을 表現하는 方式을 釋讀口訣 資料를 對象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동안 高麗時代의 字吐釋讀口訣의 文法的 特徵을 論議하는 자리에서 또는 다른 主題를 論議하면서 使動에 대한 特徵을 簡略하게 言及한 적은 있었지만, 使動을 주제로 字吐釋讀口訣은 물론 點吐釋讀口訣을 對象으로 整理한 글은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高麗時代의 字吐釋讀口訣과 點吐釋讀口訣을 對象으로 使動의 類型, 使動에 關聯된 口訣字와 口訣點, 使動에 대한 主要한 論議들을 整理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는다.

資料로서는 字吐口訣 資料로는『華嚴經疏』卷35,『華嚴經』卷14,『舊譯仁王經』卷上 落張 5매,『瑜伽師地論』卷20,『合部金光明經』卷3 등을, 點吐口訣 資料로는『瑜伽師地論』卷5, 卷8,『華嚴經』卷6, 卷22, 卷36, 卷57 등을 對象으로 하였다.

現代國語의 使動은 使動 接尾辭 '-이-' 등에 의한 形態的 使動, '하다' 動詞의 '하다' 代身에 '시키다'를 代替시켜 使用하는 '(-)시키다' 使動, '-게 하-' 등을 使用하는 統辭的 使動 등으로 分類한다. 여기에 單語 自體에 使動의 意味가 있는 '보내다' 등의 語彙 使動을 認定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論者들에 따라 意見을 달리하는 部分이다.[1)]

---

1) 範疇에 대해 古典主義(classical theory of categorization)의 觀點에 土臺를 둔 文法 記述 態度를 취하는 論議의 경우 語彙的 使動을 使動 範疇로 認定하지 않고(이주행 1993), 範疇에 대해 原型理論의 觀點(prototypical theory of

이들을 使動 標識의 有無라는 觀點에서 보면 使動 標識가 없는 語彙 使動과 使動 標識가 있는 形態的 使動, '(-)시키다' 使動, '-게 하-' 使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를 無標的 使動(unmarked causative), 後者를 有標的 使動(marked causative)으로 볼 수 있다. 無標的 使動의 경우, 지금까지 '보내다' 등의 固有語 動詞만이 거론되었으나, '除外하다, 擴大하다' 등의 '하다' 동사들도 해당된다.[2)]

이 글의 論議 順序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使動文의 特性을 形式的인 側面과 意味的인 側面에서 살펴서, 國語의 使動文을 典型的인 使動文과 周邊的인 使動文으로 나누는 觀點에 대해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釋讀口訣의 使動 表現의 表記 樣相을 살핀다. 4장과 5장에서는 高麗時代 國語의 典型的인 使動文의 特性 가운데 被使動主의 標識와 使動 接辭의 支配 範圍가 하나의 動詞句(VP)를 넘는 所謂 統辭的 使動[3)]에 대해서 살펴본다. 6장에서는 使動文을 使動 標識의 有無를 根

---

categorization)을 취하는 論議의 경우 語彙的 使動을 使動 範疇로 認定하게 된다(김성주 2003). 前者는 어떤 範疇에 대해 그 範疇의 構成員과 非構成員을 兩項的(binary)으로 區分할 수 있다는 態度이고, 後者는 어떤 範疇의 構成員은 典型的인 構成員과 그렇지 않은 構成員은 즉 周邊的인 構成員들이 있어서, 그 構成員들 사이에 程度性이 있다고 보는 態度를 취한다. 이 글은 後者의 觀點을 취하고 있다. 範疇에 대한 古典主義와 原型理論의 觀點에 대한 理論的인 論議는 Taylor(1989)를 參照하고, 絶對主義的 觀點에서 國語의 使動을 論議한 論文들에 대한 批判的 考察은 김성주(1999)를 參照할 수 있다.

2) '(-)시키다' 사동의 경우 '感動하다, 究竟하다'와 같이 '(-)하-'를 '(-)시키-'로 바꾼 '感動시키다, 究竟시키다'가 '感動하다, 究竟하다'의 사동사가 되는 類型(類型 Ⅰ), '硬直하다, 錄音하다'와 같이 한편으로는 '硬直하다=硬直시키다, 錄音하다=錄音시키다'가 성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硬直시키다, 錄音시키다'는 '硬直하다, 錄音하다'의 사동사가 되는 類型(類型 Ⅱ), '除外하다, 擴大하다'와 같이 '除外하다='除外시키다, 擴大하다=擴大시키다'의 類型(類型 Ⅲ)이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김성주(2002) 참조.

3) 匿名의 審査委員이 指摘한 대로 現代國語의 '統辭的 使動'과 釋讀口訣의 '統辭的 使動'은 분명히 다르다. 前者는 使動文 構成이 統辭的 方式에 의해 形成되었다는 것이고, 後者는 使動 接辭의 支配 範圍가 統辭的이라는 것이다. 同

據로 典型的인 使動文과 周邊的인 使動文으로 나누고, 釋讀口訣 資料에서 보이는 無標的 使動에 대해서, 그 特性과 處理 問題를 살핀다.

2. 典型的 使動文

어떤 文章이 典型的인 使動文이 되기 위해서는 '使動文 條件'을 滿足해야 한다(김성주2003:51~60). 使動文 條件은 意味 條件과 形式 條件으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는 原因이 되는 使動 事件(causing event)과 結果가 되는 被使動 事件(caused event)과 같은 두 개 以上의 事件이 設定될 수 있어야 하며, 話者는 使動 事件의 發生이 被使動 事件의 發生보다 時間的으로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4] 後者는 使動의 表現을 擔當하는 特別한 形式인 使動 標識가 있어야 하고, 意味的·形式的으로 關聯이 있는 主動詞文의 設定이 可能해야 함을 말한다.

(1) 가. 整衣ㅅ가 束帶ㅅ옫ㄱㅣ ᄒᆞ거ᄂᆞᆯ 當 願 衆生 善根ᄋᆞᆯ 檢束ᄒᆞ야ᄋᆞᆫ 散失 令ᄒᆡ尸 不ㅅᄒᆞ쇼(옷을 가지런히 하며 허리띠를 맬 경우에는 반드시 원컨대 衆生은 善根을 檢束하여서 散失하게 하지 마소서) <華嚴14;04:07>[5]

一한 用語를 다른 意味로 使用했다는 점에서 混同의 憂慮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旣存의 論議에서 現代國語의 경우 使動 形成 方式의 觀點에서,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대해서는 使動 接辭의 支配 範圍에 대해서 統辭的 使動이란 用語를 불러온 慣行을 尊重하여 이 用語를 그대로 쓰도록 한다. 이후로 言及되는 '統辭的 使動'은 使動 接辭의 支配 範圍에 대한 것임은 물론이다.

4) 匿名의 審査委員이 使動文 成立 條件에서 使動 事件과 被使動 事件이 同時에 일어나는 경우도 成立 可能할 수 있다고 指摘했고, 筆者도 그 점에 同意한다. 그러나 使動文 成立 條件에서 重要한 事實은 두 事件의 實際 發生 時間이 아니라, 使動主(또는 話者)가 使動 事件과 被使動 事件을 어떻게 把握하고 있는가이다.

나. 善根ㅣ 散失ㅅ-

(2) 가. 百萬億能開悟香[33(·)]普[24(ㅣ)]徧一切[44(·),53(·),43(\),55(·),23(ㅣ)]令其聞[15(/)]者諸[33(·)?]{23(·)}根寂靜[42(·),51(·)]

<華嚴22:03:16-03:18>

나. 百萬億 能 開悟 香ㄱ 普ㅣ 一切ㄹ十 {徧}ㅏㅣ(ㅅ)ㅇㅅ 其 聞 X{者} 諸ㄱ 根 寂靜{令}ㅣㅁ(백만억 능히 開悟시키는 향은 널리 일체에 두루하여서 그 맡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根을 적정하게 하며,)

(1)은 字吐口訣, (2)는 點吐口訣의 例이다.[6] (1가)는 '옷을 가지런히 하거나 허리띠를 맬 때 중생이 善根을 檢束하여서 散失하지 않게 하소서' 정도로 解釋되는데, 이 때 使動主와 被使動主는 각각 '衆生'과 '善根'으로, 使動詞와 主動詞는 각각 '散失 令ㅣ-'와 '*散失ㅅ-'로 볼 수 있다. (1가)를 典型的인 使動文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1가)의 話者는 使動 事件인 '衆生이 善根을 散失하게 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被使動 事件인 '善根이 散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使動事件의 發生이 被使動 事件의 發生에 先行하고, 使動 標識로 '-ㅣ-'를 設定할 수 있으며, 使動文과 意味的·形式的으로 關聯性을 가지는

5) 匿名의 審査者가 (1가)의 被使動主를 '衆生' 또는 '자신의 본분' 등으로 解釋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部分은 智首菩薩이 文殊菩薩에게 菩薩이 어떻게 하면 身·口·意 3業이 殊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文殊菩薩이 140願을 일으키도록 권하는 偈頌이다. 淨行品의 偈頌에서 '菩薩이 ~할 때에는 마땅히 원컨대 衆生이 ~하라'의 構成을 가지는데, 內容上 이때의 衆生은 菩薩 自身을 包含하는 衆生이 된다. 따라서 (1가)의 被使動主도 '衆生(菩薩)의 善根'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合理的이다.

6) 점토구결의 예문은 먼저 (가)에 점토구결의 점토를 판독한 자료를 제시하고, (나)에서 자토구결로 풀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점토구결의 판독은 각각의 점도(點圖)에 의거했는데 『유가사지론』의 점도는 장경준(2004)를, 『화엄경』의 점도는 박진호(2003)을 참조했고, 사용한 점토구결 판독문은 대체로 구결학회와 구결강독모임의 그것에 따랐으나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있다.

主動文으로 (1나)를 設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은 使動文의 意味的 條件과 形式的 條件을 滿足하는 典型的인 使動文이라 할 수 있다. 點吐口訣의 例文인 (2)에서도 이러한 解釋은 同一하게 適用될 수 있다.

그러나 釋讀口訣에서 (1,2)와 같은 典型的인 使動文만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典型的인 使動文이라면 意味的·形式的인 觀點에서 體系的으로 對應하는 主動文이 設定되어야 한다. 口訣 資料는 歷史的인 資料이어서 現代人의 直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對當 主動文의 設定이 쉽지 않다.

(3) 가. 我ㄱ 今ㅅㄱ 永ㄷ 貪愛乙 捨ㅅ{爲欲}ㅅ {此}ㅣ 一切 必ㅎ 離散ㅅㄷㅎㄷ 物ㄷ乙 以ㅋㅎ 衆生ㅋ 願乙 滿ㅅㅣㅁㅐㅋㄷㅣㅅㄴㅏㅁ(나는 이제 영원히 貪愛를 버리고자 이 一切 반드시 離散하는 事物로써 衆生의 願을 채울 것이다 하며) <화소 35;12:16-17>

나. 身ㅣ 充徧ㅅㄹㅁ 虛空 {如}ᄒㅅㅋㅎ 安住 不動ㅅㅋㅎ 十方ㅋ 十 滿ㅅㅌㅎㅁ(몸이 充徧하는 데 있어 虛空 같아서 安住 不動해서 十方에 充滿하리며) <화엄14;14:06>

(4) 亦ㅅㄱ 復ㄹ 共ㄷ 量 無ㄷㄱ 音樂ㄴ 作ㅅㅋ 如來ㄴ 覺寤ㅅㅣ白ㅁㅏㅂㄱ(또한 또 함께 限量 없는 音樂을 지어 如來를 覺寤하게 하시니) <구인上;03:12-13>

(3가)의 '滿ㅅㅣ-' 는 의미적·형식적으로 대응하는 主動詞로 '滿ㅅ-'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동사는 (3나)에서와 같이 字吐口訣 文獻에서 文證되므로, '滿ㅅㅣ-'를 使動詞로 規定하는 데는 異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4)의 '覺寤ㅅㅣ-'의 경우에는 이 동사가 나오는 『舊譯仁王經』은 물론 다른 구결 자료에서도 문증되지 않는다.

(5) 가. 菩薩ㄱ 十ㅁ 種 行乙 行ㅅㅋ 亦ㅅㄱ 一切 大人ㅋ 法乙 行ㅅ

ᄒᆞᄉᆞᄐᆞᄀᆞᄀᆞᆫᄀᆞᆯ 示ㅣᄉᆞᆫ(菩薩은 열 가지 行을 行하고 또한 一切 大人의 法을 行하고 하는 것을 보이며)

<화엄14;18:18>

나. 示ㅣᄀᆞᆫᄀᆞ 所ㄴ 苦行火ㄴᄒᆞᄇᆞᆫᄀᆞᆫᄀᆞ 世ㅣㅅ 堪ㅣᄋᆞᆺᄉᆞᆷᄉᆞᆷ 靡ㄴ ㅣᄉᆞᆷᄉᆞᄒᆞ 彼ㄱ 見ㅣᄇᆞᆫ 已ㅣᄉᆞᆫᄆᆞ(보이는 苦行은 世間에서 堪當할 이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나서 모두 調伏시키며)

<화엄14;20:05>

다. 若ㄴ 牀座ㄱ 敷ᄉᆞᄃᆞᆨㅣᄉᆞᆨᄀᆞ 當 願 衆生 善法ㄱ 開敷ᄉᆞᄉᆞᄒᆞ 眞實 相ㄱ 見ㅂᄂᆞᆫ(만약 平床을 깔 때에는 반드시 원컨대, "衆生은 善法을 開敷하여서 眞實相을 보소서")

<화엄14; 03:22>

(5가)의 '示ㅣ-'는 분명 使動詞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나 對當 主動詞는 '示-'가 아니라, (5다)의 '見-'을 想定할 수 있다. '見-'은 對當 使動詞로서 (5나)의 '見ㅣ-'가 있으므로, 결국 (5가)의 '示ㅣ-'와 (5나)의 '見ㅣ-'는 同一한 使動詞 '보이-'를 表記한 것으로 理解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使動文 條件 가운데 한두 가지를 滿足시키지 못하지만, 使動의 意味를 가지고 있는 文章을 周邊的 使動文이라 부르고, 典型的인 使動文과 周邊的 使動文을 함께 아우르는 用語로 '使動 表現'이란 用語를 쓰기로 한다. 使動文이 아닌 使動 表現을 論議의 對象으로 다루는 데는 實際 言語에서 典型的인 使動文을 區別하기가 어렵다는 言語的 事實에 土臺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인 使動文 論議에서는 使動文과 非使動文을 엄격히 區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使動文에 該當하는 文章들만을 論議의 對象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使動文과 非使動文을 가르는 作業은 쉽지는 않다.

3. 使動 表記 樣相

字吐口訣에서 使動은 '-ㅣ-, -ᄒᆞ-'와 '-ᄉᆞㅣ-, -ᄉᆞ이-, -ᄉᆞ-'로 表記되었다. 前者는 固有語 動詞에 連結될 때, 後者는 'ᄒᆞ-' 動詞에 連結될 때 쓰인다. (6가)는 固有語 動詞 '보-'에 '-ㅣ-'가 붙은 것이고, (6나)는 '낟-'에 '-ᄒᆞ-'가 붙은 것이다.

(6) 가. V이-: 手ᄋᆞᆫ 錫杖 執ᄒᆞᄀᆞᆫ ᄃᆡ 當 願 衆生 大施會ᄒᆞ 設ᄒᆞᄋᆞᄉᆞᄫᅡ 如實 道ᄒᆞ 示이ᄇᆞᆸ소(손에 錫杖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願하건대, "衆生은 大施會를 施設하여 如實히 道를 보이소서."(할 것이며)) <화엄14;04:17>

나. Vᄒᆞ-: 一切 衆生ᄋᆞᆯ {爲}三 一切 佛ᄭᅴ 神力ᄋᆞᆯ 現ᄒᆞᄋᆞᆫ 敎化 調伏ᄒᆞᄋᆞᄉᆞᄫᅡ 修行 不斷 令이ᄒᆞᄆᆞᆫ 盡ᄃᆞᄒᆞ{可}ᄐᆞᄒᆞᄇᆞ 不ᄭᅳᆺ ᄒᆞᆫ{故}이ᄂᆞᆫ(一切 衆生을 위해 一切 佛의 神力을 나타내어 敎化·調伏해서 修行·不斷하게 함을 다할 수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화소35;19:20>

'ᄒᆞ-' 動詞의 使動은 本文에 使動 機能 動詞인 '令' 등이 있는 경우와[7] 없는 경우로 크게 區分된다. 後者의 경우에는 (7가)의 '-ᄉᆞㅣ-', (7나)의 '-ᄉᆞ이-', (7다)의 '-ᄉᆞ-'로 나오는데, (7라)와 같이 'ᄒᆞ-' 動詞임에도 불구하고 使動 標識로 '-ㅣ-'가 쓰인 경우도 있다. (7나)의 '-ᄉᆞ-'는 『合部金光明經』 卷3에서 '-ᄉᆞ-' 代身에 쓰이는 形態이다.[8] 前者의 경우에는 (7마)의 '令이-', (7바)의 '-ᄒᆞ{令}이-', (7사)의 '-ㅣ令이-'의 形態로 나온다. (7바)와 같은 表記는 『瑜伽師地論』에 보이고, (7마)와 같은 表記는 『華嚴經』에 보인다.

---

7) 字吐釋讀口訣에서 보이는 使動 機能 動詞로는 '令' 이외에 '使, 俾' 등이 있다.
8) 『合部金光明經』 卷3에서도 주로 3장 以前에서는 使動 標識로 '-ᄉᆞ-'가 쓰였다.

(7) 가. 我ㄱ 今ㅅㄱ 宜ㄱ 彼ㅋ 求ノㄱ 所乙 隨ㄱ 其 意乙 充滿ㅅㄲㄱㅎ{應}ㄴㅅㄱㄲㄱㄱ丁(나는 이제 마땅히 저들의 要求하는 바를 좇아 그 뜻을 充滿하게 할 수 있다.) <화소35;11:13>

나. 我ㅌ 等ㅅㄱㄱ 爲ノ 救護ㅅㅎ 利益ㅅㅎノ尸入乙 作ㅅㅈ 一切 障礙乙 消除ㅅㄲ가(우리들은 위하여 救護하고 利益하고 하는 것을 하여 一切 障礙를 消除하게 하며) <금광3;15:13>

다. 又 修所斷ㄴ 惑品麤重乙 已ㅑ 遠離ㅅㄱㅅㅠ 故ノ 輕安乙 獲得ㅅㄱ 輕安ㅠ 故ノ 生ㅅㄱ 身心 淸凉ㅠ 攝受ノㄱ 極所ㄲㅏㄱㄲㅛ 是{如}ㅈ 二種乙 修得圓滿ㅅㄲ가 又 此 有學ㅋ 金剛喩定ㄲ 究竟ㅈㅏ 到ㅊㄱㅅㅠ 故ノ 修得圓滿ㅅㅏㅎㄴㅣ(또 修所斷惑品의 麤重을 이미 遠離한 까닭으로 輕安을 獲得하며 輕安으로 난 身心의 淸凉으로 攝受한 極所이라서, 이 같은 二種을 修得圓滿하게 하며 또 이 有學의 金剛喩定이 究竟處에 이르는 까닭으로 修得圓滿하게 할 수 있다.) <유가29:17-20>

라. 亦ㅅㄱ 復ㄹ 共ㄴ 量 無ㄴㄱ 音樂ㄴ 作ㅅㅈ 如來ㄴ 覺寤ㅅㄲㄱㅁ白ㅁㅁㅅㄱ(또한 또 함께 限量 없는 音樂을 지어 如來를 覺寤하게 하시니) <구인上;03:12>

마. 其 欲ㄱ尸 所ㄴ 隨ㄱ 皆ㄴ 滿 令ㄲㅈ尒 普ㄲ 衆生ㅋ {爲}ㅑ 饒益ㄴ 作ㅅㅏ가(그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 모두 만족하게 하여서 널리 衆生을 위해서 饒益을 지으며) <화엄14;17:22>

바. 一十ㄱ 自ㅠ {於}契經ㅗ 阿毘達磨ㅗノ수十 讀ㅅㅎ 誦ㅅㅎ 受持ㅅㅎ 正作意ㄴ 修ㅅㅎㅅㅈㅎ {於}蘊 等ㅅㄱ 事ㅈㅏ 極 善巧ㅅ 令ㄲ가(하나는 스스로 契經이니 阿毘達磨니 하는 것에 대해 읽고 朗誦하고 受持하고 正作意를 닦고 해서 蘊 같은 일에 대해 極히 善巧하게 하며) <유가20;25:06>

사. 能가 多ㄲㄱ 功德寶乙 得ㄲ令ㄲㅊㄱㅅㅠ{故}ノ 是乙 名下 方便勝智波羅蜜因ㅗノ王가(능히 많은 功德寶를 얻게 하는 까

닭으로 이것을 일컬어 方便勝智波羅蜜因이라고 하며) <금광 3;02:12>

點吐口訣의 경우, 사동은 (8가)와 같이 『瑜伽師地論』에서는 '24(·)'으로, (8나)와 같이 『華嚴經』 卷6, 卷22, 卷57에서는 주로 '42(·)'으로, (8다)와 같이 『華嚴經』 卷36에서는 '24(ㅣ)'으로 表示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나 특이하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8) 가. 令於善行[44(·)]不隨所[15~25(-),32~42(·),24(·),21(.·)]欲[+15~25(-),34(·),21(·),지시선(/)]故[41(·)]名[54(·)]爲縛[53(·),+55(·.)] <유가08:07:06>

가'. {於}善行ㅓ 欲픅 所ᄀᆞᆯ 隨ㅅ(ㅅ)픅 不ㅎ{令}ᄉᆞᄅᆡX 故ᄉᆞᆫ 名ᄒᆞ {爲}縛ㅣxᄀᆞ(善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 하지 못하게 하는 까닭으로 일러 縛이라 하며,)

나. 七念[24(ㅣ)]是菩薩道所謂念佛[경계선,41(·),55(/)]於一毛[43(\),25(·)]孔[53(·)]見無量佛[41(·),53(:)]開悟一切衆生[23(-)]心[41(·),42(·)]故 <화엄57:04:24-05:02>

나'. 七念ᄅᆡ (是)ᄅᆡ 菩薩道(ᄅᆡᄂᆞᆫᄀᆡ) 謂(ᄉᆞᆯᄀᆡ) 所(ᄀᆡ) 佛ᄀᆞᆯ 念(ㅅ)ᄂᆞᄒᆞᄆᆞᆫᄀᆡ {於}一毛ᄋᆞᆫᄆᆞᆫ 孔ㅓ 量(ᄅᆡ) 無(ᄀᆡ) 佛ᄀᆞᆯ 見(ᄉᆞᆯᄀᆡ)ㄹᆞ ㅓ 一切 衆生ㄹᆞ 心ᄀᆞᆯ 開悟ᄉᆞᄅᆡ(ᄑᆞᆨㅅᄆᆞ) 故(ㅣ)(七念이 菩薩道다. 즉 佛을 念할 수 있다. 털 하나마다 털구멍에서 限量없는 佛을 본 이에게 一切 衆生의 마음을 開悟시키는 까닭이다.)

다. 示生死[25(·)]過患[41(·),24(ㅣ),34(ㅣ)]教化衆生俛讚如來[44(·)]智慧利益[41(·ㅣ),23(ㅣ)]{41(·.)}教化衆生 <화엄36;11:05-06>

다'. 生死ᄂᆞᆫ 過患ᄀᆞᆯ 示ᄅᆡᄒᆞᆷ 衆生(ᄀᆞᆯ) 教化(ㅅᄀᆞᆫ) 如來픅 智慧 利益ㅅ픅ㅅᄀᆞᆯ 俛讚(ㅅ)ᄒᆞᄆᆞ 衆生(ᄀᆞᆯ) 教化(ㅅᄀᆞᆫ)(생사의 過患을 보여 중생을 교화하며, 如來의 智慧가 이익되게 하는 것을 稱讚하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點吐口訣의 使動 標識는 字吐口訣을 考慮할 때 '-ㅢ-'가 表記되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瑜伽師地論』의 '24(·)', 『華嚴經』 卷6, 卷22, 卷57의 '42(·)', 『華嚴經』 卷36의 '24(ㅣ)' 등은 모두 字吐口訣의 口訣字 '-ㅢ-'에 對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 가. 段食一種[33(·),구결자(ㄱ)]唯[32~42(·)]令欲界[=42(·)]有情[23(·)]壽命[34(·)]安住[24(·),55(·)] <유가05;06:03>

나. 段食 一種ㄱ 唯ㅅ 欲界ㄷ 有情ㅋ 壽命乙 安住(ㅅ){令}ㅢㅁ (段食 一種은 오직 欲界의 有情의 壽命을 安住하게 하며)

(10) 가. 衆生有疑[33(/),14(·)]皆[25(·)]使斷[42(·),22(·)]廣大信解[41(:)]悉[34(ㅣ)?]令發[42(·)?,22(·)] <화엄06;01:24>

나. 衆生 疑 {有}ㅐㄲ 皆ㄷ 斷 使ㅢㅎ 廣大 信解ㅅㅎ乙 悉ㅇ 發 令ㅢㅎ(중생이 의심 가지는 것을 모두 끊게 하며 廣大 信解함을 다 發하게 하며)

(11) 가. 復次[23(-)]此[24(ㅣ)]菩薩[33(·)]未生[25(··)]諸[33(·)]惡[35(·)]不善法[41(·),21(ㅣ·)]爲不生[24(ㅣ),32(-),45(:)]故[24(·)]欲[41(·)]生[24(ㅣ),34(ㅣ)]勤[25(·)]精進[43(ㅣ)]發心[23(ㅣ)]正[25(·)]斷[51(·.)?] <화엄36;02:10>

나. 復 次ㅋ {此}ㅢ 菩薩ㄱ 未生(ㅅ)ㅂㄷ 諸ㄱ 惡X 不善法乙X 不生ㅅㅢ{爲}ㅅXㅅㅡ故ㅊ 欲乙 生ㅢㅇ 勤ㄷ 精進(ㅅ)ㅇㅎ 發心(ㅅ)ㅇ(ㅅ) 正ㄷ 斷fx가(또 다음의 이 菩薩은 未生한 모든 惡·不善法에 대해서는, 不生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欲心을 내어 부지런히 精進해서 發心하여 바로 斷할 것이며,)

字吐口訣의 '-ㅢ-' 使動에는 (12)의 '일이-'와 같이 後期 中世國語에서도 用例가 없는 경우도 있고, (13)과 같이 後期 中世國語 知識으로 形態를 분명히 알 수 없는 '-ㅢ-' 사동사의 예도 있다. 한편 點吐口訣의 사동에는 (14)와 같이 固有語 使動詞인지 '漢字語+-ㅅㅢ-' 使動

詞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2) 衆會 聚集ᄒᆞ시ᄂᆞᆫ ᄃᆡ 當 願 衆生 衆ᄀᆞ 聚ᄒᆞᆫ 法ᄋᆞᆯ 捨ᄒᆞ야ᅀᅡ 一切 智ᄋᆞᆯ 成ᄒᆡᄫᅳᆫ(衆會에 聚集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건대, "중생은 여러 모인 법을 버려서 一切智를 이루소서.") <화엄14; 03:04>

(13) 가. 辯才奮迅無礙迅疾[23(\)]分別一切[41(·),23(|)]咸[25(·)]令受益[14(·.),41(··),24(|),43(|)?]心[42(|)]歡喜[42(·)]故 <화엄57;19:08>

나. 辯才(ᄒᆞᆫ) 奮迅(ᄒᆡᄂᆞᆫᄀᆡ) 無礙 迅疾ᄒᆞᆫ 一切ᄋᆞᆯ 分別(ᄒᆞ)ᄒᆞ야(ᅀᅡ) 咸ᄒᆞᆫ 益ᄂᆞᆫᄆᆞᆯ 受ᄒᆡᄒᆞ야ᅀᅡ 心ᄒᆞᆷ 歡喜 令ᄒᆡ(ᄆᆞᆯᄉᆞᄆᆡ) 故(ᄋᆞᆫ) (辯才의 奮迅이다. 걸림 없고 빠르게 一切를 分別하여서 모두 이익됨을 받게 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까닭이다.)

(14) 가. 如段食[=22~32(·)]能[55(·)]引受生[33(/)]有情[34(·),22(·)]令住[=24(·),35(·)]令安[24(·),35(·)]勢力[34(·)]增長[24(·),11~21(-),+11(·),51(.·)] <유가05;14:01>

나. 段食ᄒᆡ 能ᄒᆞᆫ 受生ᄒᆞᆫᄀᆞ 有情ᄋᆞᆯ 引(ᄒᆞ)ᄒᆞ 住(ᄒᆞ){令}ᄒᆡᄒᆞᆷ 安(ᄒᆞ){令}ᄒᆡᄒᆞᆷ 勢力ᄋᆞᆯ 增長ᄉᆞᄒᆡᄇᆞ {如}ᄒᆞᆫᄃᆞᆺ(段食이 능히 受生한 有情을 끌어 머물게 하고 便安하게 하고 勢力을 增長시키는 것과 같다.)

後期 中世國語의 '-오/우-' 또는 '-호/후-' 使動도 字吐口訣에 存在한다. (15가)와 (15나)의 '現ᄒᆞ-', '具ᄒᆞ-' 등은 이 동사에 해당하는 후기 중세국어의 形態가 각각 '나토-', 'ᄀᆞᄎᆞ-' 등임을 고려할 때, '-호/후-' 使動을 表記한 것으로 보인다.[9] 點吐口訣에서도 '-ᄒᆞ-' 使動이 確認되는데, (16)에서 使動詞로 쓰인 '現ᄒᆞ-'를 확인할 수 있다.

---

9)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現ᄒᆞ-, 具ᄒᆞ-' 등의 主動詞로 想定되는 15세기 形態는 '낟-, 곶-'이므로, 사동 접사 '-ᄒᆞ-'는 '-호/후-'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15) 가. 若 無量 神通ㄴ 力乙 現ᄒᆞᄇᆞ尸ㅅㄱ 則 不可思議ㄴ 土ᄋᆞ十 住ᄉᆞᄋᆞᄒᆞ 不可思議ㄴ 法乙 演說ᄉᆞᄋᆞ 不思議ㄴ 衆乙 歡喜 令ㅣᄇᆞᄒᆞᄒᆞ(만일 限量 없는 神通力을 나타나게 하면 不可思議의 國土에 머물러서 不可思議의 法文을 演說하여 不思議의 衆生을 歡喜하게 할 것이며) <화엄14;13:05>

나. 袈裟衣乙 著ᄉᆞᄀᆞㅣ十ㄱ 當 願 衆生 心ᄋᆞ十 染ノ尸 所ᄋᆞ 無ᄋᆞㅅ 大仙ㅋ 道乙 具ᄒᆞᄇᆞᄎᆞ(袈裟衣를 입을 때에는 반드시 願하건대, "衆生은 마음에 물 들 것이 없어서 大仙의 道를 갖추소서.") <화엄14;03:12>

(16) 가. 現大神通[25(·)]力[41(·),24(\),34(|)]敎化衆生 <화엄36;11:07>

나. 大神通ㄴ 力乙 現ᄒᆞᄋᆞ 衆生(乙) 敎化(ᄉᆞᄒᆞ)(큰 大神의 힘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ᄒᆞ-' 사동도 漢文 原文에 使動 機能 動詞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17)과 같은 表記 方式을 취한다. 그러나 '-ㅣ-' 使動과 '-ᄒᆞ-' 使動 사이에는 看過할 수 없는 差異가 있다.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高麗時代 口訣의 使動文은 漢文 原文에 使動 機能 動詞 '令' 등이 나올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前者의 경우에는 항상 '-ㅣ-'로 表記되며 '-ᄒᆞ-'로 表記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10] 그러므로 釋讀口訣의 使動 標識는 '-ㅣ-'로 볼 수 있다.

(17) 가. 十善妙行 {等}ㅣᄉᆞㄱ 諸ㄱ 道ㅣㄱ 無上 勝寶乙 皆ㄴ 現ᄒᆞ {令}ㅣㄴᄒᆞㄴㄴㅣ(十善 妙行 같은 모든 道인 無上 勝寶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화엄14;14:12>

나. 復[33(·)]現十[44(·)]種[25(·)]雨{33(·),35(·),45(·),41(·)?}一切寶蓮華光明雲[41(·),24(\),52(·)] <화엄06;04:11>

나'. 復(ᄉᆞ)ㄱ 十尸 種ㄴ 雨一切寶蓮華光明雲乙 現ᄒᆞᄋᆞ(또한 열 가지의, 모든 寶蓮華를 내리는 光明雲을 나타내며,)

---

10) '現ᄒᆞᄋᆞ'의 '-ᄒᆞ-'도 사동 접미사의 표기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ᄆᆞ-' 使動과 關聯하여 注目할 점은 高麗時代 口訣에 '-ᄆᆞ'를 가진 副詞로 마치 使動詞로 解釋될 수 있는 (18,19)와 같은 예가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18,19)의 '隨ᄆᆞ'는 必須的인 論項을 가지는 副詞로 보아 使動 表現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ᄆᆞ-' 使動으로 把握한 (15가,나)의 '現ᄆᆞ-', '具ᄆᆞ-' 등이 活用하고 있음에 비해, (18,19)의 '隨ᄆᆞ'는 活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18) 菩薩ㅣ {此}ㅢㄹ十 住ㅅᄒᆞᄂᆞㄴㅣ 普ㅢ 觀察ㅅᄋᆞ 宜ㅣㄹ十 隨ᄆᆞ 示現ㅅᄒᆞᄂᆞㅎ 衆生ㄷ 度ㅢㅏᄒᆞ(菩薩은 여기에 머무르니 널리 觀察하고 마땅함을 따라 示現하여서 衆生을 건너게 하여) <화엄 14;17:20>

(19) 가. 隨所來[25(·)]方[41(·),24(ᄉᆞ)]各[43(ㅣ)]化作種種[25(·)]寶莊嚴師子[25(·)]之座[41(·)]於其座上[53(·)]結跏趺坐[45(-),55(·.)] <화엄06;11:06-07>

나. 來(ㅁ) 所ㄴ 方ㄱ 隨ᄆᆞ 各ᄒᆞㅎ 種種ㄴ 寶莊嚴 師子ㄴ{之} 座ㄱ 化作(ㅅ)ㅇ {於}其 座 上十 跏趺坐 結Xx ㅣ(온 곳의 방향을 따라 각자 갖가지 보배로 장엄된 사자좌를 변화로 만들고, 그 자리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後期 中世國語의 形態的 使動에는 '-ᄋᆞ/으-' 使動도 存在했다.(허웅 1975:171-172, 고영근 1997:245-247) 그러나 釋讀口訣에서 '-ᄋᆞ/으-' 使動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4. 被使動主의 標識

現代國語 使動文의 被使動主 標識는 形態的 使動의 경우 '-에게'나 '-을/를'이, '-게 하-' 使動의 경우 '-이/가, -을/를, -에게, -로 하여금'

등이 쓰인다. 釋讀口訣에서는 '-乙'이 가장 生産的인 被使動主 標識이며, '-十'와 '-灬'는 被使動主 標識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한두 개 있으나, 用例가 너무 적어 確言하기 어렵다.

字吐口訣에서 被使動主 標識 '-乙'은 (20가)의 '-ㅐ-' 使動과 (20나)의 '-ㅅㅐ-' 使動에 두루 確認된다. 點吐口訣에서도 對格 標識 '-乙'은 『華嚴經』의 경우 '41(·)'으로, 『瑜伽師地論』의 경우 '34(·)'으로 表示되는데, 각각의 경우를 (21)과 (22)에서 確認할 수 있다. 특히 (22)의 경우에는 '34(·)'으로 表示된 點吐 외에 角筆로 口訣字 '乙'이 쓰여 있어, '34(·)'이 口訣字 '乙'에 對應됨을 알 수 있다. 被使動主 標識에는 '-乙'을 포함한 形態인 '-乙火, -乙ㅠ刀' 등도 쓰였다.

(20) 가. 是ㅐ {如}ㅊ 三乘ㄴ 教ㄴ 開闡ㅅㅣㅎ 廣ㅐ <u>衆生ㄴ</u> 度ㅐㅋㅁ
ㅎ 量ㅐ 無ㄱ 劫ㅣ十ㅅㅁㅂㄴㅎ(이 같은 三乘의 教를 열어서 널리 衆生을 건너게 하며 限量 없는 劫에 (건너게) 하며)
<화엄14;14:22>

나. {此}ㅐ 藏ㅣ十 住ㅅㄷㅏㅂㄴ 者ㅋㄱ 無盡 智慧ㄹ 得ㅣㅎ 普
ㅐ <u>一切 衆生ㄹ</u> 能ㅊ 開悟ㅅㅐㅏㅋㄴㅣ(이 慧藏에 머무는 者는 다함 없는 智慧를 얻어서 널리 一切 衆生을 능히 開悟하게 할 수 있다.) <화소35;20:04-05>

(21) 가. 令<u>一切衆生[41(·)]</u>離諸[33(·)]苦惱[41(·),24(·),24(|),51(·)]令<u>一切衆生[41(·)]</u>普[24(|)]得淸淨[12(:),41(··),24(|),51(·)]
<화엄36;10:06-07>

나. <u>一切 衆生ㄹ</u> 諸ㄱ 苦惱ㄹ 離ㅊ{令}ㅐㅎ <u>一切 衆生ㄹ</u> 普ㅐ
淸淨ㅅㄱ ㅅㄹ 得{令}ㅐㅎ(一切 衆生으로 하여금 모든 苦惱를 여의게 하며, 一切 衆生으로 하여금 널리 淸定한 것을 얻게 하며,)

(22) 가. 能令<u>衆生[34(·),구결자(乙)]</u>樂著[2자합부-역독선]種種妙欲塵[34(·),24(·),43(|)]故[55(·)]能[55(·)]障[역독선]證得[2자합부-역

독선]出世法[34(·),45(\),43(|)]故[41(·)]名[54(·)]爲拘导[53(·),+51~52(·.),경계선] <유가08;07:22-08:01>

나. 能 衆生乙 種種 妙欲塵乙 樂著(ㇴ){令}ㅐx灬{故}ㅁ 能ㅁ 出世法乙 證得x入乙 障x灬 故ㅗ 名下 {爲}拘导ㅗx丨(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갖가지 妙欲塵을 즐겨 집착하게 하는 까닭이며, 능히 出世法을 證得하는 것을 막는 까닭으로 일러 拘导라 한다.)

(23)에 대해서 박진호(1998)은 '-十'를 被使動主 標識로 把握했고, 최동주(2000:308)은 같은 資料에서 '彼ㅐ十'는 주로 '處所'로 解釋되는 점과 後期 中世國語 時期에도 '-에게'가 被使動主 標識로 實現되는 경우가 일부의 使動詞에 局限된 점을 考慮하여, 處所 標識로 볼 可能性을 提示했다. 그러나 點吐口訣에서도 '-十'나 '-灬'를 被使動主 標識로 볼 수 있는 (24,25)와 같은 예가 있다.

(23) {於}彼ㅐ十 常ㅐ 己ㄹ十 勝ㄴㅌㄷ 法乙 思ㅅㅐㅏㅁ(그들에게 항상 자신에게 殊勝한 法을 생각하게 하며) <화엄14;20:01>

(24) 가. 如父母[22~32(·)]於己[23(·)]處女[23(·),44(·)]爲適事他[34(·),24(·),31(·),45(/),43(·)]故[21(·)] <유가08;12:10-11>

나. 父母ㅐ {於}己ㄹ 處女ㄹ十 他乙 適事ㅅㅐ{爲}ㅅx入乙灬{故}ㄴ(父母가 자기의 處女에게 남을 適事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25)가. 謂[33(·)]欲令彼[43(·)]自[43(·)]失[역독선]財物[34(·),24(·),31(·),+25(/),51(·)] <유가08;16:16-17>

나. 謂ㄱ 彼灬 自灬 財物乙 失(ㄴ){令}ㅐ{欲}ㅅx矢丨(그로 하여금 스스로 財物을 잃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5. 統辭的 使動

釋讀口訣의 '-ㅣ-' 使動은 語彙를 派生시키는 形態的 使動은 물론 두 개 以上의 動詞句(VP)를 派生시키는 統辭的 使動으로도 쓰였다. (박진호1998:192-193) (26나,27가)는 이른바 '-ㅅㅋㅈ'으로 연결되는 使動 接尾辭 '-ㅣ-'의 統辭的 接辭 構文이다. (26가,나)에서 使動主와 被使動主의 省略된 部分을 補充한 것이 (26다)인데, (26다)에서 '-ㅋㅈ'으로 연결된 先行文 '(不定ㄴ 衆生ㅋ) 因ㅣ 相續ㅅ-'와 後行文 '(不定ㄴ 衆生ㅋ 因ㅣ) 間斷ㅅㄲ 無有ㅣ'는 '令ㅣ-'의 支配를 받는다. (27가)에서 생략된 피사동주 '衆生'을 補充한 갖은 構造는 (27나)와 같은데, (27나)는 使動主 '信'이 '衆生ㅣ 根(乙) 淨ㅅ-'와 '(衆生ㅣ) 明利(ㅅ)-'의 두 文章의 使動主로 機能하며, 使動 接尾辭 '-ㅣ-'는 先行文의 '淨ㅅ-'와 '明利ㅅ-'를 同時에 支配한다.

(26) 가. 究竟[23(\)]成熟不定[25(·)]衆生[41(·)]是菩薩藏令因[41(·)]相續[43(|)]無有間斷[24(|)]故 <화엄57;11:05-06>

나. 究竟ㅎ 不定ㄴ 衆生乙 成熟(ㅅㅣㄲ矣) {是}(ㅣ) 菩薩藏(ㅣㅏㅣ) 因乙 相續(ㅅ)ㅈㅈ 間斷(ㅅㄲ) 無有ㅣ 令(ㅣㄲㅅㅛ){故}(ㅈ)(不定의 衆生을 끝까지 成熟하게 하는 것 이것이 菩薩藏이다, 因으로 하여금 相續하여서 끊임없이 하게 하는 까닭이다.)

다. [(菩薩ㄱ) [(不定ㄴ 衆生ㅋ) 因ㅣ 相續ㅅ-]ㅈㅈ [(不定ㄴ 衆生ㅋ 因ㅣ) 間斷ㅅㄲ 無有ㅣ] 令ㅣ]ㄲㅅㅛ{故}ㅈ

(27) 가. 信ㄱ 諸ㄱ 根 淨ㅅㅈㅈ 明利 令ㅣㅏㅎㅎ <화엄14;10:02>

나. 信ㄱ [[諸ㄱ 根(ㅣ) 淨ㅅ-]VP-ㅈㅈ [(諸ㄱ 根ㅣ) 明利ㅅ-]VP 令ㅣ]ㅏㅎㅎ(信心은 모든 根을 깨끗하게 하여서 밝고 날카롭게 할 것이며)

(28,29)는 이른바 '-ㅅㅋ -ㅅㅋ'로 연결되는 統辭的 使動文인데, 使

動主와 被使動主를 補充한 갖춘 구조는 (28다,29다)와 같다.[11]

(28) 가. 二者 {於}黑白法ㅋ + 遠離ㅅ-ㅎ 攝受ㅅ-ㅎㅅㅣㄴㅇㅓㅁ(둘째, 黑白法에 대해 遠離하고 攝受하고 하게 하되 智와 能을 갖추며) <금광3;05:02-03>

나. 二者 {於}黑白法+ [[(衆生ㅣ) 遠離ㅅ-]-ㅎ [(衆生ㅣ) 攝受ㅅ-]-ㅎ]ㅅㅣㄴㅇㅓㅁ

(29) 가. 三者 {於}生死 涅槃ㅋ + 不猒ㅅ-ㅎ 不喜ㅅ-ㅎㅅㅣㄴㅇㅓㅁ(셋째, 生死涅槃에 대해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게 하되 智와 能을 갖추며) <금광3;05:04>

나. 三者 {於}生死 涅槃+ [[(衆生ㅣ) 不猒ㅅ-]-ㅎ [(衆生ㅣ) 不喜ㅅ-]-ㅎ]ㅅㅣㄴㅇㅓㅁ

6. 無標的 使動

範疇에 대한 原型理論의 觀點을 받아 들여, 使動文 成立 條件 가운데 한두 가지 特性이 缺如된 使動文을 周邊的 使動文이라 부를 수 있는데, 釋讀口訣에서도 周邊的 使動을 設定할 수 있다. 周邊的 使動 가운데는 使動 標識가 缺如된 채 使動의 意味를 가지는 유형이 있는데, 이를 無標的 使動이라 부른다. 無標的 使動詞는 同一한 形態의 動詞가 自動詞임에도 불구하고 使動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면서 對格을 支配하고 있을 경우에 確認할 수 있다.

(30가,31가,32가)의 '出ㅅ-'는 對格을 支配하는 他動詞로 쓰이고 있으나, (30나,31나,32나)의 '出ㅅ-'는 自動詞로 쓰였다. 釋讀口訣에서

11) 文脈을 고려하면 使動主 '五因'은 쉽게 設定할 수 있으나, 省略된 被使動主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說明의 便宜를 위해 暫定的으로 例文에 나오는 '我'를 被使動主로 把握하였다.

'出ㅅ-'라는 同一한 形態로 表記되는 動詞가 自動詞와 함께 他動詞로 機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사를 自·他動 兩用動詞라 부르는데, 他動詞로 쓰이는 경우에 있어서 使動의 意味가 確認되면, 無標的 使動詞로 設定할 수 있다.[12]

(30) 가. 若 不思議(七) 光(乙ᄆ) 莊嚴ㅅㅂ尸入ㄱ 其 光ㄱ 則ㅊ 諸ㄱ 蓮華ㄴ 出ㅅㅂ千ㅿ(만일 不思議한 빛으로 莊嚴하면 그 빛은 바로 많은 연꽃을 낼 것이며) <華嚴14;13:01>

나. 悉ㅈ 和雅ㅅㅂ七 妙 音聲ㄴ 奏ㅅナ仝ㄴ {於}掌七 中ㄴ 從 出ㅅ尸 不ㅅ尸丁ノ尸 靡七ㅣㅅロㅂ千(다 和雅한 妙한 音聲을 演奏하니 손바닥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으며) <華嚴14;16:01>

(31) 가. 諸[33(·)]天子衆[33(·)]各[43(ㅣ)]從其身[41(·),25(·)]出此諸[33(·)]雲[41(·),12(:)]時[11(·),53(·)]百[33(·)]千億阿僧祇[25(·)兜率天子[11(·)?]及[25(·)]餘[33(·)]在會[53(·),12(-)]諸[33(·)]天子衆[11(·),13(/),33(·)]心[42(ㅣ)]大[24(ㅣ)]歡喜[23(ㅣ)]恭敬頂禮[52(·.)] <주본화엄22;10:05-10:07>

나. 諸ㄱ 天子 衆ㄱ 各ㅈㅊ 其 身乙 從七 此 諸ㄱ 雲乙 出ㅅㄱ 時ㅅ十 百 千 億 阿僧祇七 兜率天子ㅅ 及七 餘ㄱ 會十 在xㄱ 諸ㄱ 天子 衆ㅅノ仝ㄱ 心ㅎ 大ㅣ 歡喜(ㅅ)ㅈㅅ 恭敬 頂禮x千(모든 천자들은 각각 그 몸으로부터 이 모든 구름을 낸 때에 백 천 억 아승기 도솔천자니 남은 회중에 있는 모든 천자들이니 하는 이는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공경 정례하며)

(32) 가. 然[14(/)]於根門[44(·)]有風氣[22~32(·),22(·)]出[44(.·)煩惱[2

12) 匿名의 審査委員의 指摘대로 使動의 意味에 대한 判斷은 完全히 現代 國語의 直觀에 의한 것이어서 釋讀口訣의 自·他動 兩用動詞를 無標的 使動詞로 設定하는 것은 無理가 따른다. 그러나 現代國語의 경우와 다른 言語의 경우를 미루어 釋讀口訣이 쓰이던 高麗時代 國語에서 無標的 使動詞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主動詞가 自動詞인 2項 使動詞에 대해서만 檢討해 보려고 한다.

2~32(·)]便[21(·)]息[+53(/)] <유가 권5;06:20-20>

나. 然ᄂᆞᆫ {於}根門ㅅ 風氣ㅣ 有ᄒᆞ 出ᄂᆞᄀᆡ ᄒᆞ면 煩惱ㅣ 便ᄒᆞ 息ᄒᆞᄅᆞᆫ(그러나 根門에 風氣가 있어 나오는 때에는 번뇌가 곧 그친다.)

無標的 使動詞는 'ᄂᆞ-' 動詞는 물론 固有語 動詞에서도 確認된다. 그러나 無標的 'ᄂᆞ-' 動詞와 無標的 固有語 動詞는 看過할 수 없는 差異가 있다. 後者는 使動 標識가 懸吐되지 않았을 可能性이 있는데 비해, 前者는 生成된 以來로 現代國語에 이르기까지 形態 變化 없이 使動詞와 非使動詞로 쓰였을 可能性이 있다. 'ᄂᆞ-' 動詞가 使動詞임을 表示하기 위해서, 高麗時代 國語와 後期 中世國語에서는 '-ᄉᆞᄫᅵ-' 또는 '-ᄒᆞ이/히-'를, 近代國語 以後에는 '-시기/시키-'를 接尾시키는 方法이 있었지만, 일부의 'ᄂᆞ-' 動詞는 現代國語에서도 여전히 形態 變化 없이 使動과 非使動으로 쓰이는 無標的 使動詞로 機能하는 경우가 있으며, 釋讀口訣에서도 이런 現像은 例外가 아니다.

7. 原文과 口訣文의 관계

釋讀口訣 資料는 모두 漢文에 口訣을 懸吐한 資料이기 때문에 漢文의 文法的 特徵에 따라 口訣을 懸吐한 것이다. 漢文(Classical Chinese)에서 使動을 表現할 때는 '令' 등 使動 機能 動詞를 使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동사 없이 사동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原文과 口訣文의 使動 標識의 對應 關係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原文에도 使動 標識가 있고, 口訣文에도 使動 標識가 있는 경우, 둘째 原文에는 使動 標識가 없고 口訣文에만 使動 標識가 있는 경우, 셋째는 原文에도 使動 標紙가 없고

口訣文에도 使動 標識가 없지만 使動의 意味가 있는 경우이다.

(33) 가. 如段食[=22~32(·)]能[55(·)]引受生[33(/)]有情[34(·),22(·)] ① 令住[=24(·),35(·)]令安[24(·),35(·)] ② 勢力[34(·)]增長[24(·),11~21(-),+11(·),51(.·)] <유가05;14:01-02>

나. 段食ㅣ 能ᄒᆞ 受生ㅅㄱ 有情ㄹ 引(ㅅ)ᄋᆞ ① 住(ㅅ){令}ㅣᄒᆞᆫ 安(ㅅ){令}ㅣᄒᆞᆫ ② 勢力ㄹ 增長ᄉᆞㅣㅂ {如}ᄎᆞXㅣ(段食이 능히 生을 받은 有情을 끌어 ① 머물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② 勢力을 增長하게 하는 것과 같다.)

(34) 가. 二者於黑白法遠離攝受 <금광3;05:02-03>

나. 二者 {於}黑白法ㅓ 遠離ㅅᄒᆞᆫ 攝受ㅅᄒᆞᆫᄉᆞㅣㅅㄱㅁ

(35) 十方 淨土ㄴ 變ㅅᄒᆞᆫ 百億 高座ㄴ 現ㅅᄒᆞᆫ 百億 須彌寶花ㄴ 化ㅅᄒᆞᆫㅅㄱㅣㅂ 有ㅓㅏㄱㅣᄉ(十方 淨土를 변화시키고 百億 高座를 나타내고 百億 須彌寶花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 있다.) <구인上;02:02-03>

(33가①)은 原文에 使動 機能 動詞 '令'이 쓰이고, 口訣文에도 使動 標識가 쓰인 예문이고, (33가②,34)는 原文에는 使動 機能 動詞가 쓰이지 않았으나 口訣文에는 使動 標識가 쓰인 예이며, (40가)는 使動의 意味를 가진 것으로 解釋되나 漢文 原文과 口訣文에서 使動 標識가 쓰이지 않은 이른바 無標的 使動 表現의 예다.

8. 맺음말

앞에서 論議했던 事項을 要約하여 整理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釋讀口訣에서도 使動 標識의 有無에 따라 有標的 使動과 無標的 使動으로 나눌 수 있다. 有標的 使動의 경우, 使動 標識는 '-ㅣ

-, -ᄒᆞ-, -ᄉᆞ(ㅣ)-' 등이 사용되었다. 現代國語에서는 固有語 動詞와 '하다' 動詞의 사동 형식이 다른데 비해, 釋讀口訣에서는 '-ㅣ-' 使動이 固有語 動詞와 '하다' 動詞에 모두 사용되었다.

둘째, 釋讀口訣에서 使動 標識는 字吐口訣에서는, 固有語 動詞의 경우 항상 '-ㅣ-' 또는 '-ᄒᆞ-'로 表記되었으며, 'ᄂᆞ-' 動詞의 경우, '令' 등의 使動詞가 없을 경우에는 '-ᄉᆞㅣ-, -ᄉᆞㅣ-, -ᄉᆞ-'로 表記되고, 使動詞가 있을 경우에는 '令ㅣ-, -ᄂᆞ{令}ㅣ-, -ㅣ令ㅣ-'로 表記된다. 點吐口訣에서는, 『華嚴經』 系列에서 '42(·)'(권6, 권22, 권57)이나, '24(ㅣ)'(권36)으로, 『瑜伽師地論』 系列에서는 '24(·)'으로 表示된다.

셋째, 被使動主 標識로는 字吐口訣에서 '-ㄹ'이 쓰였으며, '-ㅓ'와 '-ᄭᅥ'가 被使動主 標識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일부 있다.

넷째, 釋讀口訣의 '-ㅣ-' 使動은 形態的 使動은 물론 統辭的 使動으로서의 機能도 活潑했다. 統辭的 使動으로 機能하는 '-ㅣ-' 使動은 주로 '-ᄂᆞᄋᆞᄆᆞ'으로 連結되는 動詞句를 支配하거나 '-ᄂᆞᆫᄃᆡ -ᄂᆞᆫᄃᆡ'로 連結되는 動詞句를 支配하는 類型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 사동과 관련하여 논의되지 못한 것들이 몇 있다. 사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 '부사어 + ᄂᆞ-' 구성과 [되게 하다]로 해석되는 '{爲}ᄉᆞᆷ/{爲}ᄒᆞ(ᄒᆞ)' 구문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강명순(2001), 「국어 사·피동법의 역사적 변화 방향 및 그 원인에 관한 새로운 고찰」, 『한글』 254, 119-160쪽.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김성주(2003), 『한국어의 사동』, 한국문화사.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쪽.
박진호(2003), 「주본 『화엄경』 권 제36 점토구결의 해독 -자토구결과의 대응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15-231쪽.
서종학(2004), 「차자 '令是-' 攷」,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33-155쪽.
Song, Jae Jung(1996), *Causatives and causation: A universal-typological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이은규(2003)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5)』 석독 입겿문의 동사 '삼-'에 대하여」,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165-188쪽.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해독 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91-213쪽.
최동주(2000), 「국어 사동구문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27, 303-327쪽.
허 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Taylor, J.(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Oxford; Clarendon Press.

〔411-75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에이스 10차 아파트 102동 1002호〕
E-mail: sutra01@hotmail.com
접수일자: 2004. 11. 28.
게재결정: 2005. 1. 29.

On the Causative Expressions in Seokdok-Kugyeol(釋讀口訣)

Kim, Seong Ju

This paper aims at introducing the causative expressions in Seokdok-Kugyeol(釋讀口訣) texts. Seokdok-Kugyeol(釋讀口訣) has two types; the one is Jato-Seokdok-Kugyeol(字吐釋讀口訣)(henceforth, JASK.) and the other is Jeomto-Seokdok-Kugyeol(點吐釋讀口訣)(henceforth, JESK.) The data used in this paper are Tafangkuangfohuayenchingsu(大方廣佛華嚴經疏)(henceforth, TS) vol. 35., Buddhāvataṃsaka-mahāvaipulya-sūtra(大方廣佛華嚴經)(henceforth, BAMS) vol. 14., Hopuchinkuangmingching(合部金光明經)(henceforth, HKS) vol. 3., Jenwangpenjopolomiching(仁王般若波羅蜜經)(henceforth, JPI) vol. 1. 5 leave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henceforth, YCB) vol. 20. as JASK and Buddhāvataṃsaka-mahāvaipulya-sūtra(大方廣佛華嚴經) vol. 6, 22, 36, 57,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5, 8. as JESK.

The causative are transcribed in '-ㄹ-, -ᄀᆞ-, -ᄉᆞ(ㄹ)-' in JASK and in 24(·) in BAMS vol. 6, 33, 57, in 42(ㅣ) in BAMS vol. 36 and in 24(ㅣ) in YCB vol. 5,8. I classified the causative construction into two types, to say, the one is the prototypical causative constructions and the other is the peripheral causative

constructions based on the prototype theory.

The characters of the syntactic causative and the causee markers are considered as the member of the prototypical causative construction and the unmarked causative constructions as the peripheral causative constructions. I confirmed the syntactic use of '-i-' causatives and the 乙, 十, 亻 as causee marker in JESK as well as in JASK.

Key words: Seokdok-Kugyeol, Jato-Seokdok-Kugyeol, Jeomto-Seokdok-Kugyeol, prototypical causative, peripheral causative, syntactic causative, causee markers